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학전공을 중심으로-

남윤진*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현황을 한국어 교육의 기반 형성과 한국학 연구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개관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학 교육의 양적 측면을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된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학 전공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소개한다. 이에는 다른 여러 외국어와 동일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한국 국외의 외국어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가 하는 측면이 조명된다. 또한 한국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어려운 인적,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 메워나가고 있는지,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원 및 교직 과정의 운영 상황이 어떠한지도 다룬다.

주제어: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 한국학 교육, 도쿄외국어대학

* 도쿄외국어대 교수

- | | |
|-------------------------------------|------------------------------------|
| 1. 들어가기 | 3. 도쿄외국어대학 한국학 전공의 교육 과정 |
| 2.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전공
교육의 실태 | 4. 한국어 교육 및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한 과제 |

1. 들어가기

세계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한국어 및 한국학¹ 교육은 2000년 대 이후 양과 질 두 측면 모두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의 이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학 전공을 설치하는 대학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교육의 양적 증가 추세를 유지,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학을 교수할 수 있는 교원의 확보와 잘 짜여진 교육과정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학의 한국학 전공에 있어서 교수자 및 교육 기관의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국어학을 비롯한 한국학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어 독자적인 전통을 구축해 온 지역이다. 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기반 형성과 한국학 연구의 심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교육의 현황을 개관하고 성장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 두

1 본고에서는 ‘한국학’을 ‘한국어 및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 언어 교육학, 문학, 역사,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각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함.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된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교육의 양적 측면을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필자가 소속된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학 전공²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교육을 소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ㄱ. 도쿄외국어 대학 한국학 전공의 개요와 역사
 - ㄴ.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
 - ㄷ.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학 교육 현황
 - ㄹ.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교직 과정 운영 현황

2.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전공 교육의 실태

일본 한국어교육학회³에 의해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2년간 실시된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의 최종보고서⁴에 따르면 2020년 현

2 공식적으로는 ①언어문화학부 언어문화학과 한국어/동아시아지역 코스와 ②국제사회학부 국제사회학과 동아시아지역/한국어 코스 등 두 개의 단위가 존재하며 ‘한국학 전공’은 공식 명칭이 아니다. 그러나 커리큘럼 상으로는 두 단위의 학생들이 함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게 되어 있으며 교원 및 학생 모두 학부 구별 없이 같은 학과, 같은 전공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두 단위를 아울러 ‘한국학 전공’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3 일본 국내의 한국어 교육 관련 학회로는 朝鮮語教育学会Japan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JSKLE)와 日本韓国語教育学会Japan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JAKLE)가 있다. 두 단체 모두 한국어 명칭을 「한국어교육학회」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는 전자, 즉 朝鮮語教育学会(JSKLE)에서 실시하였다.

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은 453개교로 전체 대학의 57 퍼센트를 차지한다.⁵ 또한 이 현황 조사에 응답한 130개의 4년제 대학 가운데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혹은 한국어 및 한국학 강화 코스⁶를 설치한 대학은 28개 대학으로 재적학생 수는 2076명에 이르고 있다.

이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주5회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 가운데는 2년차에 소속 학생 전원이 1년간 한국으로 유학을 가도록 되어 있는 대학도 있다.

한국어 과목뿐 아니라 한국학 과목의 개설도 많아지고 있어서 전공과정 및 강화코스의 학생은 물론, 다른 전공의 학생이나 교양 과정의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과 병행하여 다양한 한국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학 전공 과정에 개설된 한국학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는 비전공 학생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4 <https://jakle.sakura.ne.jp/pukiwiki/?韓國語教育実情調査分科会>

5 이 조사 이전에 일본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국제문화포럼(2005)가 있다. 국제문화포럼(2005)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이 1995년도에 143개 대학 25.3%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63개 대학(40.5%), 2003년에는 335개 대학으로 전체의 4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 4년제 대학의 한국어 교육이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국제문화포럼(2005)에서는 이수자 수와 교원 구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상세한 내용은 조사되지 않았다. 한국학 교육이 전공 교육으로 자리 잡기 이전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6 본고에서 언급하는 강화 코스란, 전공 과정과 교양 과정의 중간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 제도이다. 한국학 과목의 경우를 들자면, 전공 과정보다는 한국어 과목이나 한국학 과목의 이수 학점 수가 적고 내용도 덜 전문적이지만 교양 과정보다는 많은 한국어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한국학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교수받게 된다. 특정 전공에 집중하기 보다 폭 넓고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는 최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써 많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다.

〈표 1〉 4년제 대학 전공 및 강화 코스에 개설된 한국학 과목

구분	한국학 과목
강화 코스	한국 전근대사, 한국의 예술과 문화, 한국 정치론, 한국 및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한국 사회론, 한국 미디어론, 일한·일조 관계사, 비교민속 문화론 등
전공 과정	·언어학: 한국어 학교문법, 중기 조선어 입문, 일한문법 대조연구 입문, 한국어학 개론, 훈민정음 연구, 현대 한국어의 조사 어미 연구 ·문학: 현장 소설 읽기, 한국문학사, 한국문학 연구 ·역사: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근현대사, 한국사개론, 일한 문화교류사, ·사회과학: 한반도의 사회와 문화, 현대 한국 사회론, 일한관계론, 현대 한국의 이해, 중국·한국학입문연습 ·문화론: 한국문화론, 한국어언어문화론, 한국의 종교와 사회, 비교종교론 연구

3. 도쿄외국어대학 한국학 전공의 교육 과정

3.1. 개요: 역사, 학제, 교육과정, 교원 구성

도쿄외국어대학은 2023년 건학 150주년을 맞이하는데,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은 1880년 설치된 조선어학과를 모체로 한다. 그 후 1927년의 학과 폐지, 1977년의 학과 재개설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7년 한국어학과 재개설 당시 도쿄외국어대학은 외국어학부 하나로 이루어진 단과대학이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개편을 거쳐 지금은 언어문화학부, 국제사회학부, 국제일본학부 등 3개의 학부를 중심으로 언어 능력에 바탕을 둔 국제학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쿄외국어대학의 학사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학기로 운영된다. 정규 수업은 봄학기과 가을학기에 주로 개설되며 각 강좌는 1회당 90분,

학기 당 15회(15주)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 15회의 수업 가운데 13회는 일반 수업이며 2회는 학생 각자가 주어진 과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주학습(Active Learnig)으로 실시된다.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는 한 학기 분 수업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수강하는 집중 강의와 해외 단기 어학 연수 강좌로 구성된다.

현재 한국학 전공 교육은 언어문화학부(한국어/동아시아지역 코스)와 국제 사회학부(동아시아지역/한국어 코스) 두 학부로 나누어져 있지만 1학년과 2학년에 수강하는 주5회의 한국어 과목은 두 학부 학생이 함께 수강하고 있다. 두 학부라고 하지만 한 학년 인원이 각각 15명 내외이기 때문에 주5회 한국어 수업 중 4회는 30명 한 반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1회의 수업만 15명 두 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3학년부터는 2년 동안 학습한 전공언어(한국어), 필수 외국어인 영어, 교양 외국어 등의 언어 능력을 기초로 한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게 된다. 3학년 진급과 더불어 학생은 언어학, 문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등 각 학문 분야의 교원을 지도교수로 선택하고 그 교수의 세미나에 소속되어 지도를 받게 된다. 이때, 담당 교원의 허락을 받으면 반드시 자신의 전공언어 소속이 아닌 교원의 세미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학 전공 소속 학생이 일본 사상사 전공 교원의 세미나에서 한일 근대사의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국학 전공 학생이 한국 인류학 세미나에 소속하여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3학년 세미나에서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전문 과목의 강의를 수강함(강의 과목)과 동시에, 관심 있는 전문 분야의 논문을 읽고 토론하거나 강의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한다(연습 과목). 4학년 세미나에서는 3학년 때 공부한 강의 과목과 연습 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졸업 논문 집필 및 졸업 제작을 진행하게 된다. 1, 2학년은 두 학부가 공통으로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고, 3학년부터는 학부 별로, 나아가 자신의 관심

에 따라 선택한 세미나 안에서 전문 분야의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심화하게 되는 것이다.⁷

〈표 2〉 도쿄외국어 대학 한국학 전공의 교육과정(일부)

학부 \ 학년	1학년	2학년	3·4학년	
언어문화학부 한국어전공	전공언어1 지역기초	전공언어2 지역기초	전공언어3	전문과목, 세미나(언어학, 문학, 철학, 문화론, 통번역, 종교학, 심리학 등)
국제사회학부 동아시아/ 한국어 전공				전문과목, 세미나(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젠더론 등)

한편, 한국학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3〉 도쿄외국어 대학 한국학 전공 담당 교원 구성

		모어		전공		담당과목
상근	5명	일본어	3명	한국어학	2명	전공어, 전문과목, 세미나
				한국사	1명	전공어, 지역기초, 전문과목, 세미나
		한국어	2명	한국어학	1명	전공어, 전문과목, 세미나
				한국문학	1명(객원)	전공어, 전문과목
비상근	5명	일본어	4명	한국어학	2명	전공어

- 7 이처럼 1,2 학년에서 전공 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3학년 이후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 영역 강의(discipline lecture) 및 토론과 실습을 통해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졸업 논문 및 졸업 작품을 만들어 내는 교육과정은 일본의 외국어대학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학생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의 내용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학에 따라 전공어 과목의 비중을 조정한다든지, 전문 과목 수업은 수강하지만 졸업논문 집필이나 졸업작품 제작을 필수로 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문학	2명	전공어, 지역기초, 전문과목
	한국어	1명	사회과학	1명	지역기초

3.2. 한국어 교육

1) 한국어 과목의 구성 및 운영

전공언어인 한국어1, 2, 3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문화학과 국제사회학부 합쳐서 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1과 2는 필수 과목으로서 진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어 입문에 해당하는 한국어 1은 5명의 교원이 담당한다. 다섯 강좌 중 세 강좌는 도쿄외국어대학 독자의 교재를⁸ 사용하여 3명의 교원(한국어 모어화자 1명, 일본어 모어화자 2명)이 릴레이로 진행한다. 교수 언어는 일본어이다. 또한 한국어 모어화자인 객원 외국인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는 한 학년을 두 반(1반 당 약 15명)으로 나누어 한국에서 간행된 교재를 사용하여 회화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수 언어는 한국어이다. 나머지 한 강좌는 일본에서 출판된 시판 교재를 사용하여 문법과 표현 중심의 수업을 일본어로 진행하고 있다. 각 수업이 끝난 후에 담당 교원은 메일을 통해 수업의 진도 및 교실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교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1년 동안 다섯 강좌의 수업을 통하여 한국어의 발음 규칙과 기본 문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평균 수준의 학생이 1학년말에 대략 TOPIK 3급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8 현재 도쿄외국어대학 한국어 전공의 실정에 맞추어 본 교재와 워크북으로 구성된 교과서를 집필 중이며 총 30과로 구성된 시험 버전을 수업에서 사용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있다.

중급 과정에 해당하는 한국어 2에서는 기본적인 문법 사항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다섯 강좌 각각 개별적인 내용으로 진행한다. 각 수업은 ① 토론과 조사 발표를 통한 구두 표현, ② 어휘와 작문을 통한 문장 표현, ③ 라디오 뉴스 등의 음성 및 동영상 활용을 통한 듣기 및 받아쓰기, ④ 현대 한국어 문헌의 강독, ⑤ 개화기 및 방언 문헌의 강독 등으로 구성되는 바,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의 4기능을 고루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급 과정에 해당되는 한국어3의 경우, 2023년도에는 봄학기과 가을학기 합쳐서 총 11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3학년부터 수강할 수 있는 한국어3은 언어문화학과와 국제사회학부 별로 각각 사정이 다르다. 언어문화학부 학생은 최소한 4개 이상의 한국어3 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국제사회학부 학생에게 한국어3은 필수가 아니고 영어나 다른 외국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졸업에 필요한 외국어 학점을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필수가 아니더라도 전공언어인 한국어3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어3 수업은 한국어2와 비슷하게 문헌 강독, 듣기(받아쓰기),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되지만 내용 면에서는 한층 심화된 주제를 다룬다. 동영상, 드라마, 영화, 소설, 에세이 등을 통해 한국 문학, 한국 역사, 방언, 젠더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문헌을 접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3학년부터는 한국 교환유학에서 돌아온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유학 경험 이 없는 학생들과 한국어 능력의 격차가 많이 나서 학기 초에는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각자의 장단점이 보완되고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격차가 해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2) 외국어 능력 평가의 객관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한국어 교육

도쿄외국어대학에서는 대학 교육의 목표로 1. 고도의 언어운용 능력, 2.

전공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 3.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4. 전문적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 5.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언어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졸업증서와 함께 이 목표의 성취도를 가시화한 '다언어 글로벌 인재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 고도의 언어운용 능력의 판정 기준으로 CEFR-J가 이용되고 있다. CEFR-J란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외국어 학습·교육·평가를 위한 유럽언어 공통 참조기준)을 일본 상황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보완한 것이다. 언어 능력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발표, 말하기-회화 등 5가지 기능으로 설정하는 점은 CEFR과 같지만 각 기능별 도달도의 분류에 있어서는 CEFR과는 다른 체계로 운용된다. PreA1부터 C2까지 12단계로 나눈 뒤 각 도달도 별로 can-do list를 제시하고 있다.⁹

매년 학년말이 되면 각 전공언어에서는 학생 개인의 전공언어 운용능력에 대해 CEFR-J의 기준에 맞춘 평가서를 작성한다. 한국어 전공의 경우 1학년 말에 A2.2, 2학년 말에 B1.2, 3학년 말에 B2.2를 도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4학년 말까지 C단계에 이르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의 한국어 운용능력 신장은 3학년 말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범언어적인 언어운용 능력 기준의 설정과 그에 따른 개별 언어운용 능력의 평가는 28개의 전공언어 교육을 통한 다언어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어대학인 만큼 교육의 가시화를 위해 필요불

9 CEFR에서는 A1, A2, B1, B2, C1, C2의 여섯 등급인데 CEFR-J에서는 PreA1을 새로이 설정하고 A1을 셋(A1.1, A1.2, A1.3), A2, B1, B2를 둘(A2.1, A2.2, B1.1, B1.2, B2.1, B2.2)로 나누어 총 12등급을 설정하고 있다. CEFR-J의 구체적인 기준은 본문 말미의 <부록>을 참조할 것.

가결한 측면이 있다. 학생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성적 평가가 될 것인데,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부터 학습해 온 영어와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처음 접하게 되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운용능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28개 전공 언어 가운데는 학생들의 모어인 일본어와 구조적으로 매우 가까운 한국어 같은 언어가 있는가 하면 구조적, 문화적으로 아주 거리가 먼 언어도 있어서 28개 전공 언어 학생들의 숙달도를 학습 기간이나 성적만으로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8개 언어에 동일한 도달도 기준을 마련하되 언어의 사정에 맞추어 도달도 목표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각 언어의 운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만, 구조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언어들을 포괄하는 범용적인 평가 기준의 설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¹⁰ 또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각 전공언어의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이 CEFR-J의 도달도 기준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닌 현실을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될지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전공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3.3. 한국학 교육·수업의 구성 및 운영

〈표 2〉에서 제시하였듯이 전공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언어문화학과 국제사회학부의 한국어 전공 1, 2학년이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는 수업이 지

10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는 南潤珍(2021) 참조.

역기초이다. 전공어가 사용되는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측면을 개괄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 2023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수업이 개설되었다. ① 한국/조선 문화 입문: 일반적인 通史나 역사인식론, 정치/경제 분야, 언론에서 논의되지 않는 한국/조선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통해 한국/조선에 대한 이해의 방법을 모색하는 수업. ② 한국 근현대사: 1876년의 개항부터 식민지배를 거쳐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민주화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 형식으로 개괄하는 수업. ③ 일본에서의 한국/조선 담론의 의미: 일본에서 한국/조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일 수 있는지 역사적/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일본에서 조선 지역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습득하는 수업. ④ 재일 조선인의 역사: 식민지 통치기에서 현대까지의 재일조선인의 형성과정과 그 생활양상 및 일본/조선의 법제도를 해설.

한국어학 과목은 언어문화학부의 3학년 이상 학생들이 선택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는 것인데 2023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수업이 개설되었다. ① 한국어 학교 문법론: 한국어 학교문법을 음운, 문자, 형태론 및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개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과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수업. ② 현대 한국어의 어미, 조사 연구: 현대 한국어의 어미 및 조사에 대하여 예문 검토를 통해 의미, 용법,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일한 문법 대조 연구 입문: 1900년대 초기의 한국어 문법서 강독을 통해 주요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중세 한국어 입문: 15세기 한국어에 관해 기초적, 개론적 지식을 함양. 중세 한국어 음운, 문법의 개관과 문헌 강독으로 구성. ⑤ 훈민정음 연구: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고 한글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 ⑥ 한국어 어휘문법론 연습: 한국어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읽고 토론하며 한국어 코퍼스 언어학을 개괄하고 코퍼스 제작 및 코퍼스 검색을 실습하는

세미나 수업. ⑦ 한국어학 총론: 한국어학 관련 논문의 강독 및 토론으로 구성되는 세미나 수업. ⑧ 한국어 문법연구 입문: 한국어학 관련 논문의 강독 및 토론, 발표로 구성되는 세미나 수업.

한국문학 강좌는 언어문화학부의 3학년 이상 학생들이 선택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는게 되는데 2023년도 다음과 같은 수업이 개설되었다. ① 한국문학사: 훈민정음(한글) 성립되기 전과 그 이후의 문학, 식민지에 대한 저항 및 근대 국민국가 창설을 위해서 고심한 문학자들의 노력, 해방후 한국문학에 대한 해설, 동시대의 재일 한국인문학, 근현대문학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조선의 영화사를 개관하는 수업. ② 동시대 한국 소설 읽기: 2000년대 이후 변화를 거듭한 한국 문단이 여성, 성소수자, 장르 확장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의 소설 쓰기를 모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③ 한국 문학 번역 실습: 최근 주목받는 동시대 작가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함께 번역한다. 작품 번역에 필요한 여러 사전 작업-기본이 되는 작품 강독, 작가에 대한 이해, 관련 비평 탐독, 동시대 작가와의 비교 등을 선행한 뒤, 실제 번역 작업을 실시. 이 수업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수업 후반에 한국문학 번역가 및 한국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사 강좌는 국제사회학부의 3학년 이상 학생들이 선택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는데 2023년도 다음과 같은 수업이 개설되었다. ① 해방기 남북한의 정치와 사회: 1945년 8월 해방부터 1948년 8월과 9월에 남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르는 과정을 다양한 행위자들에 유의하면서 강의형식으로 개관하는 수업. ② 한국전쟁을 생각한다: 남북 양측에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시작해 한반도에 냉전체제가 정착한 시기인 1950년대 중엽에 이르는 시기의 남북한의 정치, 사회의 변화를 강의 형식으로 추적하는 수업. ③ 저항을 생각한다: 저항이라는 실천의 형태에 대해서, 역사적 혹은 현

재적 문제를 통해 고찰을 심화시킴으로써 권력에 대처하는 방식을 스스로 사유하는 수업. 병역, 성폭력, 계급지배 등등에 대한 저항을 다룬 저작들을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 수업. ④ 「한국/ 조선」을 쓴다: ‘한국’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주제를 구체화시키면서 그것에 관한 자료 조사,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독해 등의 능력을 키우는 세미나 수업.

마지막으로 졸업연구는 언어문화학과와 국제사회학부의 4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소속한 세미나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졸업논문, 혹은 졸업작품을 완성하는 과목이다.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졸업논문 및 졸업작품 가운데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졸업논문〉

- 현대 한국어의 ‘-부터’ ‘-(으)로부터’ ‘-에서부터’에 대하여
- 현대 한국어의 보조형용사 ‘보다’의 용법에 대하여
- 현대 한국어의 보조동사 ‘-어 놓다’와 ‘-어 두다’에 대하여
- 연결어미 ‘-는데’의 종결어미적 용법에 대하여-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어 속격조사의 사용 경향
- 일본어의 「優し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 일본 만화의 한국어 번역에 보이는 경어
- 「5·18담론」의 전개를 통해 본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 탈코르셋 운동을 탈코르셋하기
- K팝, 걸크러쉬,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즘 대중화

〈졸업제작〉

- 한일 야구용어 어휘집

3.4. 교직 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어 전공의 교육과정을 도쿄외국어대학의 학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한국어 및 한국학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직 과정 설치와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어 과목을 둘러싼 일본의 중등 교육 사정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중, 고등학교의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요건에 따라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제1외국어, 제2외국어 등의 구별이 없다. 영어와 함께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등이 모두 외국어 과목으로서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것이다. 영어 아닌 다른 외국어가 영어와 같은 범주로 묶인다는 것은 얼핏 보면 영어와 다른 외국어가 대등한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외국어’ 과목은 그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과목으로 입시에서 비중이 큰 영어만을 가르치게 된다. 다른 외국어를 가르칠 여유가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 영어와 경쟁하여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대학 입시가 중요시되는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최근 들어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거나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 대신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각 학교에서 한국어 전임 교원을 채용할 정도로 수업 수 및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고등학교의 한국어 과목은 비상근 교원이나 다른 과목의 상근 교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강 희망자는 많은데 가르칠 자격 있는 교사는 부족한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이외의 외국어 교육의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는 사회 단체를 통한 압력이 문부과학성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2)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과목 교직 과정의 구성

도쿄외국어대학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은 국어(일본어), 외국어, 사회과(중학교), 지리역사(고등학교)이다. 도쿄외국어대학의 경우, 학생의 소속 학부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다른데, 언어문화학부에서는 외국어, 국제사회학부에서는 사회과 혹은 지리역사 과목의 교원 자격이 취득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어 과목인 한국어 과목의 교원 자격은 언어문화학부 학생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학부 학생은 사회 혹은 역사지리 과목의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교직 과정 설치의 요건으로 제시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당 과목 학과에 전임 교원이 3명 이상일 것(그중 1명 이상이 교수). 또 하나는 교과에 관한 전문 영역 강의 20학점 이상, 교과 지도법에 대한 강의 4학점(고등학교) 혹은 8학점(중학교)을 개설할 것 등이다. 2023년 현재 한국어 고등학교 교원 1종 면허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도쿄외국어대학, 오사카대학, 사립대학으로 간다외어대학, 구마모토학원대학, 후쿠오카대학 등의 5개 대학이다.¹¹

11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따름.

도쿄외국어대학에 개설된 과목은 아래와 같다.

〈표 4〉 도쿄외국어 대학의 한국어 교직 과목 구성

과목 구분	수업 과목명	학점
한국어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연구A, B (한국어 학교 문법, 중세 한국어, 훈민정음, 한국어 어미 및 조사 연구, 한국어 문법학사 등)	12
한국문학	동아시아 문화연구A, B (한국문학사, 한국 소설 강독)	4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지역언어A(한국어Ⅲ)	6
이문화 이해	지역언어A(한국어Ⅲ)	4
한국어과 지도법	<고등학교>	4

다만 현재 학부생 가운데 한국어 교원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입학할 때는 장래 한국어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직과정 이수자가 없는 데에는 3.4.1에서 설명한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어 교육 및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한 과제

여기서는 교육의 과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한 과제 등을 검토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https://www.mext.go.jp/a_menu/shotou/kyoin/daigaku/1286948.htm

4.1. 한국어 교육의 과제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과정은 50년만에 학과 재개설을 이루어 낸 1977년 이래 많은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자를 배출해 내었다. 특히 1980년대부터 한국어 교재와 사전의 제작에 힘을 기울여 한국어 교육은 물론 일반 언어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활발한 국제 교류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전통적인 외국어 학습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학습자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 및 교수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갔다.

한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8개 언어를 전공언어로 가르치고 있는 도쿄외국어대학의 현실 속에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한국어 운용능력의 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학 전공에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을 새로운 흐름에 접목하는 시도를 실천하고 있다. 새로운 한국어 교재의 집필, CEFR-J를 참조하되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도달 기준의 모색 등이 그것이다.¹²

4.2.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한 과제

위의 3.1의 교원 구성과 3.3의 한국학 과목 개설 현황이 보여 주듯이 도쿄외국어대학 한국어 전공의 한국학 교육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한국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양과 내용 양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언어문화학부의 세미나에 한국문학 분야가 빠져 있다든지 국제사회학부 전문 과목에서 정

12 부록2에 제시한 〈CEFR-J에 준거한 한국학 전공의 한국어 도달 목표〉 참조.

치학, 경제학 등이 빠져 있는 점 등은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인적 배치에 있어서 축소 일변도로 흐르는 문과계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 사회 안에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학,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고, 정치, 경제, 방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한국 전문가의 양성에 힘을 기울일 때라 할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활발한 학문 교류, 한국, 일본 이외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넓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록1〉 CEFR-J의 Can-do List(일부)¹³

	레벨	PreA1	A1.1	A1.2	A1.3	A2.1	A2.2
이해		천천히 하는 말이라면 일상적인 친근한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	자신을 향해 천천히 하는 ‘들어주세요, 서세요’ 등의 간단한 지시를 이해할 수 있다.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는 취미, 스포츠, 씨클 활동 등 친근한 주제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는 자기 자신, 가족, 학교, 지역 등 주변에 대한 구,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천천히, 정확하게 방송된 공공 교통기관이나 역, 공항의 짧은 안내 방송을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나 요리 등 일련의 행동을 천천히, 정확히 지시 받고 지시대로 행동할 수 있다.
	듣기	영어 문자의 발음을 듣고 어느 문자인지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숫자, 가격, 날짜, 요일 등)를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	일상생활의 친근한 주제에 대해 느리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장소 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들을 수 있다.	(쇼핑, 외식 등) 간단한 불일을 볼 때 필요한 지시나 설명을 천천히, 분명히 말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학교 숙제, 여행일정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천천히, 익숙한 발음으로 지시하면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시각보조가 있는 작업(요리, 공작 등)의 지시를 천천히, 분명히 말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읽기	구두활동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림책의 단어를 찾아낼 수	‘주차금지, 취식금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짧고 간단한	간단한 포스터나 초대장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짧고 간단한 글을 읽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적힌 스포츠, 음악, 여행 등 개인적인 흥미가 있는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적힌 인물 묘사, 장소의 설명, 일상생	간단한 영어로 표현된 여행가이드북, 레시피 등 실용적이고

13 원문 영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 지면 관계 상, PreA1~A2.2 등급만 소개하기로 한다. 자세한 것은 토노 유키오(2013) 참조.

		있다.	지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주제에 대한 글을 그림이나 사진을 참고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활 및 문화 소개 등 설명문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예상되는 것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인쇄체로 쓰인 대문자, 소문자를 알 수 있다.	패스트푸드 식당의 그림, 사진이 들어 있는 메뉴를 이해하고 고를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의 여행의 추억 등에 대한 짧은 근황보고가 적힌 드폰 문자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적힌 삽화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적힌 짧은 이야기나 전기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생활, 취미, 스포츠 등 일상적인 주제를 다룬 글의 요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말하기	대화	기초적인 어구를 사용하여 '도와주세요, -가 필요해요' 등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익숙한 정형표현을 사용하여 시간, 날짜, 장소에 대해 질문하거나 대답할 수 있다.	일상 회화(할 수 있는/없는 것, 색깔 등)에서 기본적인 단어, 표현 등을 사용하여 대답할 수 있다.	취미, 씨클 활동 등 익숙한 주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질문의응답을 할 수 있다.	순서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 '먼저, 다음에, 그리고' 기본 표현 '곧, 가세요' 등을 사용하여 길안내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영어로 의견이나 느낌을 주고받거나 찬성이나 반대 등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물이나 사람을 비교할 수 있다.

		있다.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인사를 하거나 대답할 수 있다.	가족, 일과, 취미 등 개인적 주제를 익숙한 표현이나 기본적인 문장(정확하지 않더라도)으로 질의응답할 수 있다.	스포츠, 음식의 호불호 등 익숙한 주제에 대해 한정된 레퍼토리를 사용하여 간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기본적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거나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보조적인 그림이나 물건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간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우체국, 역, 가게 등)의 다양한 단어, 표현을 사용해 대화할 수 있다.
	발표	간단한 단어나 기초적인 구를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한정된 정보(이름, 나이 등)를 전달할 수 있다.	기초적 어구, 정형표현을 사용하여 한정된 개인정보(가족, 취미 등)를 전달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할 내용을 준비한 다음 한정된 친근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단어나 기초적 구 등 기본 구문을 사용하여 간단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할 내용을 준비한 다음 한정된 친근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단어나 기초적 구 등을 사용하여 복수의 문장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일련의 간단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취미나 특기 등을 언급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사진, 그림, 지도 등 시각적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일련의 간단한 단어, 어구 및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주제(자신, 학교, 지역)에 대해 짧은 스피치를 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할 내용을 준비하여 기초적 단어, 어구, 정형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물을 보이며 그 물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기초적 어구, 정형 표현을 사용하여 간단한 정보(시간, 일시, 장소 등)를 전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할 내용을 준비한 다음, 일상생활에 대해 간단한 단어, 기초적 어구, 한정된 구문을 사용하여 묘사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할 내용을 준비한 다음, 일상생활의 단순한 사실 어, 기초적 어구, 한정된 구문을 사용하여 복수의 문장으로 묘사할 수 있다.	사진, 그림, 지도 등 시각적 보조 장치를 이용하여 일련의 간단한 어구 및 문장을 사용하여 일 상생활에 직접 관련 되는 주제(자신, 학교, 지역)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일련의 간단한 어구 및 문장을 사용하여 의견이나 행동 계획을 이유를 들면서 짧게 이야기할 수 있다.
쓰기	쓰기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 단어를 인쇄체로 쓸 수 있다.	주소, 이름, 직업 등의 항목이 있는 표를 메꿀 수 있다.	간단한 단어 및 기초적 표현을 사용하여 신변에 관한 것(호불호, 가족, 학교생활 등)에 대한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사전을 이용하여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일상적, 개인적 내용의 초대장, 편지, 메모, 메시지 등을 간단한 영어로 쓸 수 있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취미, 장소, 직업 등에 대해 개인적 경험이나 자신에게 직접 필요한 영역의 일이라면 간단한 묘사를 할 수 있다.
		단어의 철자를 한글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단어 나 기초적인	취미나 취향에 대하여 간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적이고 일상적

		자씩 발음 하면 듣고 그대로 적 을 수 있 다. 적힌 것을 그대 로 옮겨 적을 수 있다.	인 정보(이 름, 주소, 가족 등)를 사전을 사 용하여 짧 은 구 혹은 문장으로 쓸 수 있다.	표현을 사용 하여 메시지 카드(생일카 드 등)나 주변 의 일에 대한 짧은 메모 등 을 쓸 수 있 다.	단한 단어나 기초 표현을 이용하여 복 수의 문장으 로 쓸 수 있 다.	단어, 간단 한 구나 문 장을 사용 하여 고문 장과 문장 을 '그리고, 그러나, 그 래서' 등의 간단한 접 속사로 연 결하면서 일기나 사 진, 사물의 설명문을 잘 짜여진 글로 쓸 수 있다.	인 생활어 휘나 표현 을 사용하 여든거나 읽은 내용 (생활이나 문화 소개 등의 설명 혹은 이야 기)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을 짧 게 쓸 수 있다.
--	--	---	---	---	---	---	---

〈부록2〉 도쿄외대 한국학 전공의 한국어 도달 목표(잠정판)

영역	레벨	내용
읽기	Pre-A1	한글을 읽을 수 있다(음운규칙은 고려하지 않음)
	A1.1	신변과 관련된 단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전철이나 역 등의 안내)
	A1.2	신변과 관련된 평이한 단문을 읽을 수 있다(메모, 캐치프레이즈, 책 제목, 신문 표제 등)
	A1.3	몇 줄 정도의 일상적인 짧은 글을 읽을 수 있다(휴대폰 문자, 평이한 메일, 편지 등: 신문 잡지, 블로그, 상품 설명 등)
	A2.1	일상적이면서 관심이 높은 주제의 짧은 글을 읽을 수 있다(칼럼 등)
	A2.2	일상적인 내용의 일정 정도 분량의 글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레시피, 여행 가이드북 등)
	B1.1	실용적인 내용의 일정 정도 분량의 글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매뉴얼, 설명서, 대학 홈페이지 등)
	B1.2	일반적인 내용의 일정량 이상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기사, 에세이, 소설, 만화, 백과사전 등: 내용이해만. 비판이나 감상은 제외)
	B2	일정량 이상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 혹은 즐길 수 있다(논문, 문학 작품)
	C	모든 종류의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다(개화지, 북한 문헌, 방한 문헌 등)
듣기	Pre-A1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용은 몰라도 그것이 한국어임을 알 수 있다.
	A1.1	천천히 분명히 말하는 친숙한 단어나 정형표현(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등)을 알아들을 수 있다.
	A1.2	천천히 말하면 일상적인 내용의 평이한 단문을 알아들을 수 있다.(전철, 버스의 안내, 자신에 대한 간단한 질문 등)
	A1.3	(쇼핑, 외식 등에서) 간단한 불일을 보는 데 필요한 지시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A2.1	일정 정도 정형화된 설명이나 지시를 이해할 수 있다(일기예보, 전철의 발차 안내 등)

	A2.2	천천히 분명히 말하는 절차가 있는 행동에 대한 지시를 지시대로 행할 수 있다(요리, 운동 등)
	B1.1	자연스러운 속도로 말하는 짧은 개요 설명을 알아 들을 수 있다(뉴스의 헤드라인, 공항이나 백화점의 안내 방송 등)
	B1.2	(헤드라인이 아니라) 뉴스의 내용이나 도큐멘터리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
	B2.1	드라마, 대학의 강의, 회의, 강연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고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B2.2	드라마, 대학의 강의, 회의, 강연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고 80퍼센트 정도 이해할 수 있다.
	C	생방송이든 모어화자의 빠른 발화이든 말투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어떤 말이라도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다.
쓰기	Pre-A1	한글을 쓸 수 있다(음운규칙은 고려하지 않음)
	A1.1	신변과 관련된 단어를 쓸 수 있다(인명, 지명, 주소 등)
	A1.2	신변과 관련된 평이한 단문을 쓸 수 있다(메모, 자기소개 등)
	A1.3	몇 줄 정도의 일상적인 짧은 글을 쓸 수 있다(LINE, 평이한 메일, 편지, 일기 등)
	A2.1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2,3 단락 정도의 짧은 글을 쓸 수 있다(취미에 대한 글, 여행기 등)
	A2.2	일상적인 내용의 일정 정도 분량의 글을 써서 정보를 주거나 설명을 할 수 있다(감상문, 에세이 등)
	B1.1	일반적인 내용의 일정정도 분량의 글을 써서 정보를 주거나 설명을 할 수 있다(HP기사, 긴 글의 요약 등)
	B1.2	일반적인 내용의 일정량 이상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수업의 리포트, 보고서 등)
	B2	논리적 사고에 바탕하여 기승전결을 생각하여 일정 분량의 글을 구성할 수 있다(논문, 논설 등의 집필)
	C	모든 형식의 글을 장면에 맞추어 적절한 문체로 쓸 수 있다(복잡한 내용의 편지 등)
말하기 (회화)	Pre-A1	친숙한 단어나 정형 표현(인사말 등)을 말할 수 있다.

	A1.1	친숙한 화제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친숙한 표현이나 기본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대답할 수 있다.
	A1.2	친숙한 화제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한 대답을 할 수 있다.
	A1.3	친숙한 화제에 대하여 친숙한 표현이나 기본적인 문장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하여 간단한 질의응답이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A2.1	예측 가능한 일상적 상황(우체국, 역, 가게 등)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A2.2	일상적 장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순서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
	B1.1	친숙한 화제나 개인적 관심이 있는 구체적인 화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표현을 잘 써서 의견, 감정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B1.2	병원, 관공서, 역, 가게 등 공공의 장소에서 관련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대응을 받을 수 있다.
	B2.1	어느 정도 친숙한 화제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이야기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B2.2	다양한 분야, 폭넓은 주제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의 생각을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
	C	어떤 대화나 논의에 있어서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으며 표현을 찾는 과정 없이 유창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말하기 (발표)	Pre-A1	내용은 몰라도 한글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음운 규칙은 고려하지 않음)
	A1.1	기초적 단어, 정형 표현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한정된 정보(이름, 나이 등)를 전달할 수 있다.
	A1.2	기초적 단어, 정형 표현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간단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A1.3	기초적 단어, 정형 표현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의견이나 감상을 순서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

	A2.1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간단한 구나 문장을 사용하여 친숙한 화제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A2.2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간단한 구나 문장을 사용하여 친숙한 화제에 대한 비교적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B1.1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리 메모를 보면서 일반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조리있게 전할 수 있다.
	B1.2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리 메모를 보면서 일반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조리있게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할 수 있다.
	B2.1	청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유창하게 행할 수 있으며 일련의 질문에 어느 정도 유창하게 대응할 수 있다.
	B2.2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바꿀 수 있다.
	C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무리없이 할 수 있으며 단어나 표현을 생각하는 시간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제문화포럼(2005),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대학 등과 고등학교에서의 현상학과 과제》, 동경: 재단법인 국제문화 포럼.
- 남윤진(2015), 일본에서의 한국 어문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e Global Age*, The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11.6-7.
- 南潤珍(2021),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바탕을 둔 커뮤니케이션 기능 별 언어 항목표 작성 시론-일본어 화자를 위한 대학교재 개발의 예비적 고찰 (원문 일본어: 韓国語の社会文化的特性に基づいた コミュニケーション機能別の言語項目表の試み - 日本語話者のための大学教材開発の予備的考察 -), 《アジア諸語の言語類型と社会・文化的多様性を考慮したCEFR能力記述方法の開発研究 - 研究成果報告書(2018-2020)》, <http://www.tufs.ac.jp/common/fs/ilr/images/kaken2021/Nam%20202103.pdf>, 77-88.
- NEGISHI Masashi(2012), *The Development of the CEFR-J: Where We Are, Where We Are Going*, 《科学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B 研究プロジェクト報告書 「EUおよび日本の高等教育における外国語教育政策と言語能力評価システムの総合的研究」》, http://www.tufs.ac.jp/common/fs/ilr/EU_kaken/_userdata/negishi2.pdf
- 오구리 아키라(2007),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재-대학 등의 조사를 통해 본 현상학과 과제(원문 일본어, 小栗章(2007)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現在-大学等の調査にみる現状と課題-), 《韓国語教育論講座》, 東京: くろしお出版, 51-68
- 토노 유키오(2013), 《영어도달도지표CEFR-J가이드북(원제 일본어, 投野由紀夫 (2013), 英語到達度指標CEFR-Jガイドブック》, 東京: 大修館書店.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at universities in Japan

—The case of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unjin Nam

This paper aims to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education at the universities in Japan.

To this end, based on the “Survey on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Japanese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is conducted from 2019 to 2020, the quantitative asp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universities in Japan is outlined.

Next,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at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s overviewed. This highlights the aspect of how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positioned in universities outside Korea, where it is inevitably placed on the same line as other foreign languages. It also covers how professional education in Korean studies in general is making up for the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what the operation status of graduate school and teachers program is like in terms of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researchers.

Keywords: universities in Japan, teaching Korean language, Korean studies,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